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스리랑카

Dem. Soc. Republic of Sri Lanka

2020년 12월 2일 | 조사역(G3) 이미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² 	인구 21.9백만 명 (2020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중립 외교노선 
GDP 811.2억 달러 (2020 ^f) 	1인당GDP 3,698달러 (2020 ^f) 	통화단위 Sri Lanka Rupee(SLR) 	환율(U\$기준) 186.20 (2020 ^f) 

-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2/7 수준임. 2020년 기준 인구는 약 2,194만 명이며, 싱할리족(75%), 타밀족(11%), 무어인(9%)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 내전 종식 후 2010~16년 중 연평균 6.2%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8년 헌정 위기, 2019년 부활절 테러로 인한 관광 부문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로 낮아짐.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섬유 산업 및 관광업 등 산업 전반이 침체하여 -4.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550억 달러(GDP의 65.5%)로 국가부채가 과중한 수준이나, 외환보유액은 채무규모 대비 낮은 수준인 66.2억 달러로 외채상환능력이 취약함.
-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후보가 당선되고, 2020년 8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며 라자팍사 대통령의 친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총리로 취임하여 '스트롱맨 형제' 체제를 구축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7. 11. 14 수교 (북한과는 1970. 6. 25 수교)

주요협정 항공협정('78), 투자증진·보호협정('80), 무역협정('84), 이중과세방지협약('86), 과학·기술협력협정('9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5), 무상원조협정('09), 문화·예술·교육·청소년·체육협력협정('1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286,837	281,699	235,237	편직물, 석유제품, 합성고무, 철강판
수입	84,135	87,757	100,008	의류, 식물성재료, 기타비금속광물, 기타섬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89건, 185,79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4.5	3.6	3.3	2.3	-4.6
소비자물가상승률	4.0	6.6	4.3	4.3	4.7
재정수지/GDP	-5.3	-5.5	-5.3	-8.2	-9.6

자료: IMF, EIU

2020년 스리랑카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대의 역성장 전망

- 스리랑카 경제는 2009년 내전 종식 후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 부문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0~16년 연평균 6.2%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를 돌파하였음.
- 그러나 2018년에는 4분기에 발생한 헌정 위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2019년에는 4월 부활절 테러 이후 관광 및 관련 산업 부문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2~3%대로 둔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000달러대로 다시 하락하였음.
- 2019년 기준 스리랑카 경제는 서비스업(62.6%), 제조업(29.4%), 농업(8.0%)으로 구성됨.
-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정부가 감염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3~5월 봉쇄조치, 여행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결과 민간소비 급감(GDP의 70%를 차지), 관광업 타격 등이 초래되어, 2020년 스리랑카 경제는 -4.6%의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2019년 부활절 테러로 위축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시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하였음(현재 SLFR 5.5%¹⁾, SDFR²⁾ 4.5%).
- 2019년 평균 실업률은 4.8%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이 위축되며 일자리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1분기 5.7%, 2분기 5.4%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전체 평균 실업률은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기관별 스리랑카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ADB	EIU	IHS Markit
2020년	-4.6	-5.5	-5.8	-5.8
2021년	5.3	4.1	2.3	2.8

1) 기준금리 상한(SLFR, Standing Lending Facility Rate):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시 overnight 금리

2) 기준금리 하한(SDFR, Standing Deposit Facility Rate): 민간은행이 중앙은행 앞 예치시 overnight 금리

국내경제

수입물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2020년 4%대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

- 2019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양호한 기후조건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회복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도와 동일한 4.3%를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발로 인한 국내소비 감소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였으나, 스리랑카 루피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 상승이 겹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보다 다소 상승한 4%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감세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 스리랑카 정부는 2016년 IMF의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 EFF)*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부가세 인상(11%→15%), 면세품목 축소, 조세법 개정 등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말 라자팍사 정부는 부가세율 인하(15%→8%), 소득세 구간 조정 등 각종 세금 인하·폐지 조치를 시행함.

* IMF는 2016년에 15.1억 달러 규모의 EFF를 승인하였으며, 만기 1년 연장 후 2020년 6월 만료됨.

[그림 1] 2019년 재정수입(왼쪽)과 재정지출(오른쪽)의 항목 및 비율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 2020년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 지속과 더불어 코로나19의 발발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0%에 근접한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기준 정부채무는 대내채무 50.9%, 대외채무 49.1%로 구성되어 있으며, GDP 대비 비중은 83.7% 수준으로 채무상환 부담은 물론 재정적자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1,742	-2,309	-2,799	-1,808	-4,747
경상수지/GDP	-2.1	-2.7	-3.2	-2.2	-5.9
상 품 수 지	-8,873	-9,619	-10,343	-7,997	-8,515
상 품 수 출	10,310	11,360	11,890	11,940	9,445
상 품 수 입	19,183	20,980	22,233	19,937	17,959
외 환 보 유 액	5,122	6,958	6,032	6,616	6,330
총 외 채 잔 액	46,400	50,830	52,804	55,012	56,456
총외채잔액/GDP	56.3	58.2	59.8	65.5	69.6
D.S.R.	15.7	22.5	18.9	29.4	38.6

자료: IMF, EIU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구조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상

- 스리랑카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구조를 지속하여, 경상수지는 2013년 이후 GDP 대비 평균 -2~-3%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2] 2019년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입 품목

구 분	주요 품 목
수출	농산품 (20.6%) 차(11.3%), 코코넛(2.8%), 향신료(2.6%),해산물(2.2%) 등
	공산품 (78.9%) 직물·의류(44.7%), 고무제품(7.3%), 석유제품(4.4%), 식료품·담배(3.7%) 등
	광 물 (0.3%) -
	미분류 (0.2%) -
수입	소비재 (19.8%) 식료품(7.2%), 자동차(4.1%), 의약품(2.8%), 의류·액세서리(1.4%) 등
	중간재 (57.0%) 연료(19.5%), 직물(14.6%), 화학제품(4.2%), 비금속(2.8%) 등
	투자재 (23.1%) 기계류(12.5%), 건축자재(7.6%), 운송장비(3.0%) 등
	미분류 (0.0%) -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9년 기준 추정치, %는 각각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입이 전년대비 약 11% 감소하였으나, 스리랑카의 주력 수출상품인 의류에 대한 해외수요가 급감하여 전년대비 상품수출은 약 26%, 총수출은 약 24% 감소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이 예년보다 클 것(GDP 대비 약 -6%)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 향후 2021~25년에도 관광 수입과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제한 조치 해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품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지속으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4.5% 수준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며, 이미 과도한 수준인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임.

과도한 외채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 프로젝트론 대출 상환, 채무형 부채 증가에 기인한 FDI 자금 유출,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등으로 2019년 말 총외채잔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50억 달러(GDP의 65.5%)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말에도 전년대비 7.5% 증가한 565억 달러(GDP의 6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스리랑카의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66.2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2.9개월분에 불과하며, 2020년 말 외환보유액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IMF의 최소 권고수준인 3개월분을 간신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21~22년에는 대외차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외환보유액 전망(억 달러, EIU) : 64('20) → 72('21) → 75('22)
- 다만, 과도한 외채규모에 비해 적은 외환보유액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으로 인한 외채상환능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외부충격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환보유액 확충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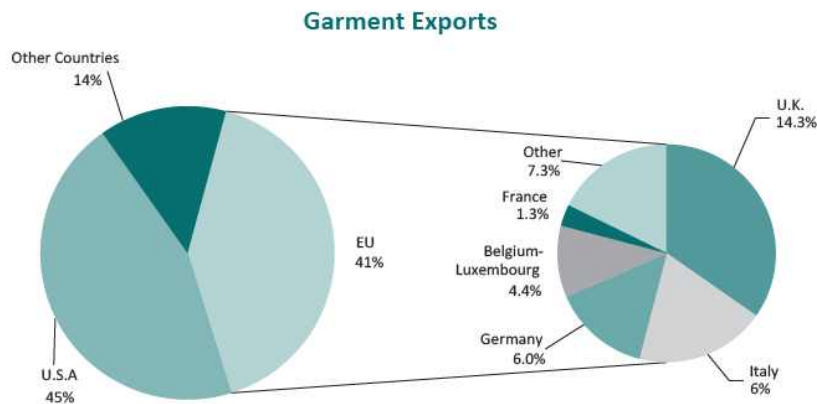
- 2020년 말 기준 외채 관련 주요 지표들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130.6%,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38.6%,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378%로 전망되어, 전반적으로 취약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됨.
 - * 연말 기준 총외채잔액 전망(백만 달러, OECD) : 56,456('20) → 58,283('21)
 - *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 전망(백만 달러, OECD) : 5,757('20) → 5,740('21)
- 해외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이 상당히 취약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구조적취약성

특정 품목,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 스리랑카 인구는 2020년 기준 21.9백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크지 않으며, 제조업 발전 수준이 낮아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에 주력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직물·의류 수출이 상품수출 총액의 44.7%를 차지하여 동 분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직물·의류 수출의 약 86%가 미국과 EU 시장에 집중되어 이들 국가들의 경기변동 및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그림 3] 스리랑카의 의류 수출대상국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관광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따른 변동 가능성 상존

- 인도양상의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수려한 자연환경, 많은 불교 유적지, 넓은 차(tea) 재배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내전 종식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00만 명,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8년 기준 관광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약 44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됨.
- 관광객 수(만 명): 65('10) → 100('12) → 152('14) → 205('16) → 233('18)
- 그러나, 외부변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 부문의 특성상 자연재해, 테러, 전염병 등 예측이 어려운 요인들은 관광 부문에의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 경제에 갑작스런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 실제로 2019년 부활절 테러, 2020년 코로나19 창궐 등은 스리랑카 관광 부문의 급격한 타격으로 이어짐.
- 스리랑카 정부는 2019년 예상 관광객 수를 전년 대비 7% 증가한 250만 명으로 전망하였으나, 부활절 테러로 관광 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전년대비 약 20% 감소한 191만 명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관광업으로 인한 외화수입도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하여 약 36억 달러를 기록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발로 관광 부문이 급격히 위축되어, 1~3월 관광으로 인한 외화수입은(9.5억 달러) 전년동기(13.9억 달러) 대비 46% 감소함.

성장잠재력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

- 스리랑카의 열악한 도로·상수도·통신 환경은 제조업 및 건설업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 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스리랑카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84위로, 도로 연결성(96위), 수도 인프라(93위), ICT(107위) 등 인프라 부문이 특히 취약한 상태임.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쳐, UNCTADStat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FDI 유입액은 2018년 1,614백만 달러에서 2019년 758백만 달러로 급감하였음.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서양을 잇는 물류 허브로의 역할 기대

-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동서양 항해의 중간 기착지이자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이에 주목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함반토타 및 콜롬보 항을 거점 항구로 선정하고 투자를 적극 확대해 왔음.
- 그러나 함반토타 항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항구의 지분 70%는 중국측에 넘어갔으며, 스리랑카 항만청은 30%만을 보유함. 국제사회에서는 이로 인해 스리랑카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협력한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에 의한 부채의 함정(debt trap)에 빠질 것이라 경고한 바 있음.

정책성과

코로나19 발발로 주요 거시경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전망

-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는 2019년 12월 국정운영 방향의 10대 원칙 및 이의 달성을 위한 5개년 간의 세부과제인 National Policy Framework를 발표하고,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함.

[표 3] 스리랑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10대 원칙

10대 원칙
① 국가안보에 우선순위 부여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② 비동맹 중립 외교 (Friendly, Non-aligned, Foreign Policy)
③ 부패 없는 정부 (Administration free from Corruption)
④ 헌법 개정 (New Constitution that fulfills the People's wish)
⑤ 생산적인 시민 및 활기찬 인적자원 (Productive Citizenry and vibrant Human resource)
⑥ 사람 중심의 경제개발 (People Centric Ecomic Development)
⑦ 기술 기반 사회 (Technology Based Society)
⑧ 물리적 자원 개발 (Development of Physical Resources)
⑨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⑩ 법규 중심 사회 (Disciplined, Law Abiding and values based society)

- 2020~25년 기간 중 주요 거시경제 목표를 평균경제성장률 6.5% 이상, 연간 1인당 GDP 6,500달러 이상, 실업률 4% 미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4% 미만 달성 등으로 수립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한 섬유 산업과 관광업의 극심한 타격으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치안정

2019년 11월 대선 결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당선

- 2019년 11월 제7대 대통령으로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국방차관이 취임했으며, 그의 친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제24대 총리로 취임하여 “스트롱맨 형제” 체제를 구축하였음.
- 스리랑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 출신인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D.A. 라자팍사의 아들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재임(2005~15년) 시절 철권통치를 주도했던 인물임.
- 26년간 계속되어 온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간 내전의 종식(2009년)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은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부활절 테러 이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진 데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2020년 8월 총선 결과, 라자팍사 가문의 ‘스트롱맨 형제’가 이끄는 여당 압승

- 2020년 스리랑카 총선은 4월 25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8월 5일 실시되었음. 1,600만 명의 유권자 중 76%인 약 1,200만 명이 총선에 참가하였으며, 16대 의원 선출에 54개 정당에서 7,452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음.
- 이번 총선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의 ‘스트롱맨 형제’가 이끄는 여당 SLPP가 유효투표의 59%를 득표하며 225석 중 145석을 차지함. 여당은 과반의 압승을 거두었으나,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인 의석 3분의 2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지는 못함.
-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지트 프레마다사의 신당(SJB)이 뒤를 이어 24%를 득표하며 54석을 차지함.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

- 2020년 10월 스리랑카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각료 해임권 및 의회 해산권 강화*, 이중 시민권자의 공직 진출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지난 8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 SLPP는 군소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개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였고, 의원 225인 중 156인의 찬성으로 동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종전에는 5년 임기인 의회의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일 때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회 임기 2년 6개월 경과시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가능해짐.

**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고타바야 대통령 등 외국 시민권자들이 있는 라자팍사 가문에 유리함.

- 현재 라자팍사 가문은 마힌다 총리를 포함해 5명의 의원과 3명의 각료를 배출한 상태임. 이에 야당은 금번 개헌이 권위주의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족벌적인 독재자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비난함.

사회안정

민족·종교 간 갈등관계 지속 예상

-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불교계 싱할라족(Buddhist Sinhalese)와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Hindu Tamils) 간의 내전은 1983년 7월 타밀 분리주의자들이 정부군 13명을 사살한 사건으로 촉발되었으며, 2008년 1월 휴전협정 폐기 후 정부의 타밀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성공하면서 2009년 5월 26일 간의 내전이 종식되고 2011년 8월 국가비상사태도 해제됨.
- 시리세나 전 대통령의 행정부는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민족 간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 4월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로 교회, 호텔 등 전국 8곳에서 약 260명이 사망하며 4개월간 국가비상사태가 시행되는 등 민족 간 갈등이 고조됨.
- 테러의 배후세력으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목되어 100여 명의 용의자 및 관련자가 체포되었으며, 이후 다수 불교도가 이슬람교도들에 보복(보이콧·폭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함.
- 싱할라족인 라자팍사 가문의 '스트롱맨 형제'가 2019년 대선 및 2020년 총선에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면서 향후 타밀족, 이슬람 등 소수 민족과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타 서남아 국가 대비 양호한 인간개발지수

- 스리랑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에서 2019년 기준 189개 대상국 중 71위를 차지하여, 다른 서남아 국가(인도 129위, 방글라데시 135위, 파키스탄 152위) 대비 양호한 수준을 자랑함.

* 인간개발지수는 기대여명, 교육 수준, 1인당 GNI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국제관계

중립 외교 노선 속 친중 경제협력 강화 예상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중립 외교노선을 채택하며 외교관계에서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영토를 놓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이 다시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리세나 전 정부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가 투자하는 다수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재임(2005~15년) 당시 중국과 공동으로 함반토타 항만과 콜롬보 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음을 감안하면 현 정부도 인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 힘쓸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같은 행보는 함반토타 항만의 지분 귀속 문제로 표면화된 스리랑카의 대 중국 예속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국제관계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는 서로 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주의

- 스리랑카 내전 당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인권 탄압 의혹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 및 EU와의 외교관계뿐 아니라 경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EU는 내전 시 발생한 인권침해가 UN 결의안 등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스리랑카에 대한 일반 관세특혜(GSP+) 부여를 취소하였다가 2017년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인정하여 GSP+ 지위를 복원한 바 있음.
- 현재 고타바야는 인권 유린 관련 국제사회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내전 당시 범죄 혐의를 받고 구치된 군인들을 석방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인권 문제 개선 노력의 부재로 향후 EU 등의 관세특혜 박탈이 재개될 위험이 있음.
- 그러나, 스리랑카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EU에의 높은 수출의존도, 서방 국가 및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점, 서방 국가들로서는 스리랑카가 인도양상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로가 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주의하는 상태임.
- 2020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양국의 안보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스리랑카 보안군에 대한 훈련 및 각종 지원을 약속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05년 1월 파리클럽은 지진 해일 피해 지원을 위해 스리랑카의 외채원리금 2.3억 달러 상환을 유예한 적이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는 이후 전액 상환하였음.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대 스리랑카 여신규모는 1,709.5백만 달러(단기 169.6백만 달러, 중장기 1,539.9백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30만 달러로 미미하여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 ECA의 인수태도는 미국 US EXIM의 경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7년 이하의 인수 가능하나 7년 초과는 인수 불가함. 영국 ECGD는 단기, 중장기 모두 건별 심사를 거쳐 인수 가능하며, 독일 HERMES의 경우 단기는 제한 없이, 중장기는 건별 심사를 거쳐 인수 가능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20.06)	6등급 (2019.06)
Moody's	Caa1 (2020.09)	B2 (2020.04)
Fitch	CCC (2020.11)	B- (2020.04)

국제신용평가3사, 2020년 중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2020년 중 S&P, Moody's, Fitch 3사 모두 스리랑카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 증가를 우려하여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는 해외자금에 대한 스리랑카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과도한 공적채무 대비 빈약한 정부수입 창출 기반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여, 2020년 9월 신용등급을 B2에서 Caa1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2021~23년 중 도래 예정인 외채상환액(약 138억 달러)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향후 자본유출 및 외채 리파이낸싱 위험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여 2020년 4월 신용등급을 B에서 B-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무 비중 급등이 외채상환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재차 하향 조정하였음.

- 스리랑카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섬유 산업과 관광업 등이 침체하고, 민간소비 및 수출이 위축되어 -4.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1인당GDP도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2019년 라자팍사 정부의 감세정책,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급증으로 GDP 대비 -10%에 가까운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품수출 감소와 관광 부문의 타격으로 총수출이 감소하여 경상수지도 GDP 대비 -6%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20년 외채 관련 지표들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130.6%,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38.6%,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378%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를 앞세워 경제적 침투를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고타야바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형제는 내전 당시 인권 탄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타밀족, 무슬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불법 탄압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신용평가3사는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규모 확대를 우려하여 2020년 중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스리랑카의 국별신용도 등급을 종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D2로 부여코자 함.